

레위기 7장

1-6 “보상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 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7-10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족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11-15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 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16-21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

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22-2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28-3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 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 높이를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데 화목 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
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의 넓적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35-36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
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이 기름부음을 받은 날
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
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
한 규례다.

37-38 이것은 번제물, 곡식 제물, 속죄 제물, 보상 제물, 위임식 제물,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시편 7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하나님! 추적이 극심하여 죽을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저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끝장입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적에게 갈기갈기 찢겨 숲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찾는 이,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3-5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

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 깔아뭉개게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6-8 하나님, 일어나소서. 광포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나를 고소한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리실 때입니다.

재판석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범봉을 두드려 나에 대한 거짓고소를 기각하여 주소서.

나는 준비 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리라 자신합니다.

9-11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우리

에게 주님의 명령을 공포하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는 분, 우리의 약한 곳을 살펴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곳을 깎아 다듬으시는 분. 주께서 바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강건하고 안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그러나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릴 수 있는 분.

11-13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에 돌입하셨다. 숫돌에 칼을 가시고 활을 메워 시위에 화살을 얹으시며, 손에는 흥기를 드셨다. 화살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린다.

14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했구나. 오, 보라! 아기를 낳았는데 거짓을

났았구나!

15-16 날마다 삼질하며 저 곧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 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에 거꾸로 처박
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
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7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
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
래하리라.

시편 8편 다윗의 시

1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웅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문혀 버리고 무신론자의 지껄임도 잠잠합니다.

3-4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 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

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5-8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
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
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
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
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9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칩니다.

잠언 22장

1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낮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2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3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살다가 호되게 당한다.

4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5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곳곳이 파인 진창투

성이 위험한 도로를 다닌다. 그 길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어라.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7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돈을 꾸면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8 죄를 뿌리는 자는 잡초를 거두어들이고 분노에 차서 씩씩대며 위협해도 얻는 것이 없다.

9 너그럽게 베푸는 손은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10 말썽꾼을 쫓아내야 사태가 진정되고 다툼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다.

11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말씨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훌륭한 지도자 또한 그와의 사귀기를 기뻐한다.

12 하나님은 지식을 열렬히 지키시지만 속임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13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 채로 먹힐 것이다!”

14 창녀의 입은 바닥 모를 구덩이다. 하나님

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15 젊은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16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아양을 떠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해 가난해질 뿐이다.

현인들의 서른 가지 교훈

17-21 내 지혜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면, 네 입으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네 기초로 삼게 하고자 바로 여기 그 내용을 펼쳐 보인다. 내가 검증된 삶의 지침, 훌륭한 원칙 서른 가지를 알려 주겠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유효한 진리들이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2-23 가난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지 말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러 오시리니, 네가 빼앗은 목숨을 네게서 빼앗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24-25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고약한 성미는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6-27 무지개 끝에서 금단지 찾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행운을 잡겠다고 집을 담보로 잡히지 마라. 빚을 청산해야 할 때가 오면 몸에 걸친 옷 하나 간신히 건질 것이다.

28 오래전 선조들이 세워 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마라.

29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노련한 일꾼들은 찾는 사람이 많고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철 같은 확신

2-5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 같게 해주셨습니다.

5-6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

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7-10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예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